

새정치 지지율 실체없는 신당에 밀렸다

전북도당 여론조사 11곳 중 10곳에서 완패

전남도당도 조사중 ... 당직자 등 당원 100명 탈당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의 여론조사 결과, 전북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야권 신당에 밀리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전남도당도 10일부터 야권 신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10일부터 3일 동안, 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정당 지지율은 물론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교체 지수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에 이어 전남도당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연합이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야권 신당의 지지율에 밀린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촉발시키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의 실망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야권 신당의 추진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또 신당의 지지율이 높아 나타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몰락의'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 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지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전남이 전통적으로 광주나 전북보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 등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도 당내 역학관계는 물론 신당론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남 및 전북도당의 여론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이 모두 비노 성향이라는 점에서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를 여론조사가 호남 민심을 명분으로 문재인 대표 등 친노 진영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우 전 사무부총장 등 새정치연합 당직자 출신 등 당원 100여 명이 9일 탈당을 선언, 분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고 문재인 대표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 10월 재보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자발적 정책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더 미래 연구소'는 이날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연속토론회를 광주시의회에서 열었다.

이상호·김승남·진성준·유은혜·진성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호남정치' '진보' '중도' 등의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가진 뒤 토론회 결과 등을 분석해 수권전략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동욱·최권일 기자 tuim@kwangju.co.kr

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 10월 재보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자발적 정책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더 미래 연구소'는 이날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연속토론회를 광주시의회에서 열었다.

이상호·김승남·진성준·유은혜·진성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호남정치' '진보' '중도' 등의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가진 뒤 토론회 결과 등을 분석해 수권전략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동욱·최권일 기자 tuim@kwangju.co.kr



"홍콩 독감 막아라" 입국 검역 강화
홍콩발 항공기에 탑승해 입국한 승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콩 독감'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홍콩 여행객의 입국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독감 환자나 사망자가 증가하는 홍콩 전역에 대해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남색 여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소 직원들이 홍콩발 항공기에 탑승해 입국한 승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콩 독감'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홍콩 여행객의 입국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민심의 법치 실현"

김현웅 법무장관 취임

김현웅(고흥 출신)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를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논어에 나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 구절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방향으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제시하고 ▲준법문화 정착 ▲부정부패 척결 ▲국민 안전 ▲사회통합 ▲미래를 주도하는 법무행정 등 5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전국 山地 70%에 관광휴양시설 허용

정부,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경관 우수한 전남도 호제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의 핵심 대책으로 전국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을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전 국토의 관광자원화를 겨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전산지 외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 가운데 개발이 허용되지 않던 전체 산지의 70% (완충구역)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광휴양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 희망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환경·안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만㎡(약

9075평) 이상의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숙박·레저시설, 골프장 등을 짓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올해 초 발표된 해양관광진흥지구 및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과 관련해선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스포츠 이벤트를 연계한 레저관광 활성화, 야생화 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이 같은 대책은 산과 해양 경관이 우수한 전남지역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남도는 물론 각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내년까지 116조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동원해 부진에 빠진 수

출 되살리기에 나선다.

수출 주력품목 경쟁력 유지를 위해 9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합동 연구개발(R&D)에도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수출 유망품목을 키운다. 올 상반기 4913억달러에 머문 무역을 활성화해 올해 연 1조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력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자문회는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혁신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력 제고 ▲수출 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100원 택시' 주민 발 자리매김

보성·화순 등 11시·군

하루 평균 750명 이용

전남도가 첫 시행중인 '100원 택시' 사업이 순항중이다. 시행중인 11개 시·군에서 매일 평균 750명이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발'로 자리잡았다.

전남도는 9일 "이낙연 전남지사 대 표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이 교통 오 지 도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는 지난해 보성군과 화순군에서 시범 운행된데 이어 올해 나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본격 운행 중이다. 올 들어 1월부터 5월 말까지 249개 마을에서 11만2480명의 도민이 '100원 택시'를 탔다. 매일 750명, 매달 2만 2500여명이 이용한 셈이다. 또 이용 대상자 7456명이 1주일에 1회 이상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100원 택시' 인기가 높고, 순천시 등 3개 시·군이 추가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하반기에 이들 시·군 78개 마을에서도 운행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점진적으로 대상 마을과 이용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6년부터는 도입을 희망하는 전 시·군에 '100원 택시'가 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마을에서 11만2480명의 도민이 '100원 택시'를 탔다. 매일 750명, 매달 2만 2500여명이 이용한 셈이다. 또 이용 대상자 7456명이 1주일에 1회 이상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100원 택시' 인기가 높고, 순천시 등 3개 시·군이 추가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하반기에 이들 시·군 78개 마을에서도 운행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점진적으로 대상 마을과 이용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6년부터는 도입을 희망하는 전 시·군에 '100원 택시'가 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해남땅끝호텔 매각 나서

85억에 매입 66억에 내놔 ... 헐값 매각 논란

전남개발공사가 해남군 땅끝 관광지 내 운영 중인 해남땅끝호텔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각 예정가격이 66억원으로, 지난 2010년 매입 당시 전남개발공사가 투입한 금액에 크게 못미쳐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매각하는 호텔은 부지 8209㎡에 객실 2개동 총 90실 규모(지상 8층, 지하 1층)로 대회의실, 세미나실, 연회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각 예정가격은 66억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대금을 완납하거나 1년간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0년 해남땅끝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까지 하는데 모두 85억3100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3분기까지 매출이 34억6400만원에 불과해 영업 적자가 31억2500만원, 경상 적자는 45억8400만원으로 대표적인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땅끝을 체류형 관광지로 활성화하고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자 2010년 땅끝호텔을 인수, 리모델링해 운영해왔다"며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시점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호텔전문 경영업체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은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에

김병일 순천대 교수 선임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는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제5대 테크노파크 원장에 김병일(62) 순천대 금속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를 포함해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장 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유동국 전남광주 테크노파크 원장과 2순위로 추천한 김 교수를 상대로 투표가 이뤄져 김



교수로 결정됐다. 신임 김병일 원장 임기는 8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김 원장은 전북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7년부터 순천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한금속재료학회 호남지회장, 전남도 정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 한국산학협력학회 부회장, 재단법인 나노기반소프트 일렉트로닉스사업단 이사를 맡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JTC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